

# 신경계중환자 전문 치료 인증의 제도 추가 안내

수신: 신경계 중환자의학회 관심이 있는 모든 전문의 선생님들께

안녕하십니까?

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 입니다.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는 신경계 중환자실 치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24년 첫 신경계 중환자 전문 치료 인증의 제도를 시행합니다.

2024년 2월 2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. (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)

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

첫 인증서 발급 기준에 연수 평점 / 몰입 기간/ 논문 등 자주 문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말씀을 올립니다. 이러한 기준은 2024-2025년 인증 심사에 한하며, 2026년 이후는 추후 심사 규정에 따릅니다.

=====

## 2. 인증의 자격 및 신청 요건

### 1) 전문의 자격증 취득자

→ 향후에 세부 전문의 제도화 및 신경계 중환자실의 전담전문의 요건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신청 자격은 전문의만 가능합니다. 전공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
### 2) 몰입 기간의 정의 및 증빙

→ 뇌와 척수와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2년간의 환자 진료 경험이 필요합니다. 이 기간은 전문의 취득 후 기간입니다. 이 기간 중에 전임의로 근무할 경우 본인의 환자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. 다만 몰입 기간은 준수 해야 하며 이 경우 증빙은 병원장, 주임교수, 각 병원 과장님의 확인서로 가능합니다.

→ 몰입 기간의 정의는 심평원 고시에 따르며, 다만 외과계의 경우 외래 이외에 수술을 한 경우도 인정을 합니다.

### 3) 2년 이상의 중환자 치료 경험이 있는 전문의이면서 몰입 기간의 기준을 하기

#### 어려운 경우

전문의 취득 이후에 아래의 사항 중 1가지 해당 하는 경우 몰입 기간을 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.

- ①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에서 제1저자 또는 공동, 교신 저자로 1회 이상의

#### 구연 발표

- ② 신경 중환자 관련 키워드 (뇌혈관/ 뇌종양/ 두부 외상, 감염성 질환/ 척수 손상을 포함한 중추신경계 질환) 를 포함하는 **논문을 학진 등재 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** 제1저자 또는 공동, 교신 저자로 원저 (1편) 또는 종설 (1편) 또는 증례 2편 이상

- ③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 학술지에 제1저자 또는 공동, 교신 저자 원저 또는 종설 1편 이상 게재

단,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 학술지 발표 논문의 경우 증례 보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
### 4) 연수 평점은 최근 3년간 30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.

인증의 제도 실시에 대해서 2023년부터 홍보를 하였으나, 연수 교육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 연수 교육 및 평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회 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2년간 이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.

→ 신경계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모든 학회의 연수 평점도 인정합니다. 신경 손상, 응급의학, 권역외상센터 교육, 신경계 감염, 뇌졸중, 뇌전증, 뇌종양, 뇌혈관, 혈관내 시술 등 신경계 중환자 치료와 관련된 모든 학회의 연수 평점을 인정합니다.

→ 연수 평점의 총합은 30점이 되어야 합니다.

→ 다만 연수 평점 30점 중에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 연수 평점이 15점 미만인 경우는 임시 인증서를 발급 후 2024년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 연수 평점을 4점 이상을 취득을 한 경우 2025년 정식 인증서를 발급합니다. 온라인 이수도 인정을 합니다.

최종적으로 인증의 신청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심사일 기준 학회의 정회원 및 종신 가입자

\* 전문의 자격자

+ 몰입 기간의 증빙 또는 3)항의 동일한 기준에 해당되는 자

+ 최근 3년간 연수 평점 30점 이상

(단 연수 평점 30점 중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 연수 평점이 15점미만인 경우 임시인  
증서로 발급됩니다. 2024년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 연수 평점 4점 이상을 온/오프라  
인으로 이수해야 한 경우 2025년 정식 인증서를 발부합니다. 이수 여부는 학회에서  
확인하여 개별 공지합니다.)

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 회장 조병문/ 인증위원장 조광욱 올림.